

# 구성주의와 언어 학습 경험

박수자\*

## I. 도입

20세기 후반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부각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파급 효과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과 교육의 경우에도 현황과 전망에 관해 구성주의적 접근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다. 패러다임 전환기와 국어과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되던 시기가 맞물리면서, 철학적 관점과 이론적 기초 제공에 많이 관여한 것이 바로 구성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교육적 실천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널리 호응을 얻고 있는 이론적 타당성에 비해, 현장 적용의 효용성에 대한 실천 연구는 아직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어과 교육의 구성주의적 전개 양상에 관해 상위 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 이르기까지 각 층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적 고찰을 하게 함

---

\* 부산교대 국어과 교수

과 동시에, 21세기를 지향하는 과제와 전망에 대해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II. 국어과 교육의 관점과 의사소통적 접근

현재 국어과 교육의 실체는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의 교육과정 구조에 대한 논의는 국어교육학의 이론적 탐구의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핵으로 여겨져왔던 '지식'의 위상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국어과 교육의 경우에도 가르치는 내용과 목표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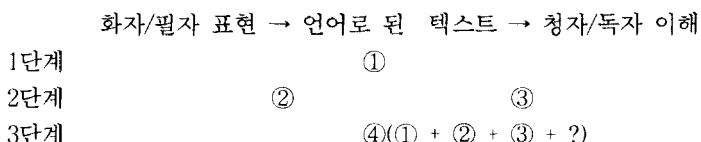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국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국어 지식(언어 지식, 문학 지식 등을 포함)의 학습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사용 활동을 통해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학습의 초점(문법 지식이나 문학작품 지식의 지도 : 지식에 관한 학습)을 새로운 측면(국어 사용 활동에 대한 지도 : 지식을 통한 학습)으로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다.

논점1) 도구교과의 성격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빈곤과 교수-학습법 상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언어능력의 신장'이지만, 이외에 모어교육으로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국어 지식의 학습과 문학작품의 감상'도 포함된다. 여기서 '언어능력'의 개념이 지닌 모호성 때문에 목표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에서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습내

용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언어능력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시도되면서 학습내용의 구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언어능력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으로서, 언어를 구사하여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고 표현된 생각을 이해하는 '사고 과정과 언어사용과정'을 다 포괄하여 접근한 개념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한 언어 사용(표현, 이해) 현상이 재조명되면서, 언어능력 개념에 따른 국어과 교육의 학습내용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특히 인간의 '의미 구성 과정'이 국어과 교육의 학습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었다.



종전에는 국어과의 학습 내용이 주로 ①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지만 (문중 위주의 접근), 지금은 ②와 ③(언어 사용 양상/활동)을 주로 고려한다. 매우 심리적인 접근 같지만, ②는 바로 사고(개념 혹은 정보)의 언어화 과정이며, ③은 언어의 사고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개인간 개인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차원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언어 구사자'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언어가 사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자료를 통한 '사고(지적·정의적 사고)의 계발을 의도하는 언어 경험'을 국어과 교육의 학습내용으로 도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후 ②와 ③을 언어학습경험으로 지칭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언어적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국어과 교육의 내용구조는 ②와 ③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본다.

국어과 교육이 도구교과라는 말에서 도구교과의 개념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매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며, 언어에 관한 학습(언어 지식 학습)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학습(언어 사용 기능 학습)에 더 비중을 두는 교과라는 뜻이다. 여기서 언어 사용 기능은 언어 사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며, 동시에 언어 사용 활동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sup>1)</sup>

따라서 도구교과의 편협성을 지적하고 인간성이 배제된 기능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은, 이러한 국어과 교육의 학습내용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구' 개념에 대한 오해와 실용주의적 접근이 주는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논점2) 외국어 교육의 접근법인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모어교육인 국어과 교육에 도입한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

제2언어교육이나 외국어교육으로서의 영어과교육에서 의사소통적 접근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국어교육으로서 영어과교육에서도 그 논의는 활발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접근이 외국어 교육에만 한정된 교수학습법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모어교육이든 제2언어교육이든 외국어교육이든지 간에 언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육은, 현재 1970년대 언어사회학에서 처음 소개된 '의사소통능력'<sup>2)</sup>

- 
- 1) 어린 아이가 처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바로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이다. 언어는 설명을 통해 지식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언어 사용 과정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아동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에 이르면, 언어에 관한 설명이 더 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시도해 보지 않고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잘 이해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2) Hymes의 의사소통능력 개념은 Chomsky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 개념을 통합하여 지칭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언어에 관한 능력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의사소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언어교육의 패러다임 상 '의사소통적 접근'<sup>3)</sup>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사소통적 접근에서 논하는 의사소통 개념은, 단순히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 전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존재하는 기반(개인간의 단순 혹은 복잡한 의사소통)을 지도하고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기반(개인 내 의사소통, 즉 언어적 사고)을 언어학습자로 하여금 형성하게 하는 차원의 개념이다.

이론적으로는 5차 교육과정의 목표부터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목표인 언어능력(국어능력)을 '의사소통능력' 개념으로 재해석하면서,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되는 '활동 중심의 언어 학습'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언어 기능별로 분책되어 제시되었다. 이것은 6차 교육과정과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존속되고 있다.

문제는 패러다임이 바뀐 시점에서 의사소통적 접근의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황<sup>4)</sup>이고, 또 과도기적으로 구조주의적 접근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의사소통적 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의 국어과 교육은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로는 언어 사용 기능을 교과서별로, 또 차시별로 분리하여,<sup>5)</sup> 제대로 된 '의사소통 활동의 언어 학습'이 구현되지 못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상에 제시된 학습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의사소

을 말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을 좀 더 언어수행의 차원에서 다룬 개념이다.

- 3) 언어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의사소통능력의 개념과 의사소통적 접근의 특성에 대해서는 박수자(1995)를 참고하기 바란다.
- 4) 본고에서는 의사소통적 접근의 본질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사소통적 접근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을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 5) 언어 기능의 분리 지도와 직접교수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박수자(1993)는 읽기 지도에 적용하여 논의한 바 있다.

통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 내용으로 부적절하다. 다시 말하면, 현재 국어과 교육은 의사소통적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교육과정의 영역 설정이나 교육과정 학습 내용의 선정, 그리고 교과서의 분책 등에서는 여전히 '언어 형태' 중심이나 '문종' 중심의 접근 등, 과거의 관점과 내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적 접근을 위(교과목표와 교과 특성)에서는 했으나, 아래(교육과정 내용 항목, 교과서 학습 경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조주의적 접근의 그늘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한편 언어 기능을 가르친다는 것과 의사소통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언어 기능을 분리하여 지도한 것은 이미 20세기 전반 부부터 있었고, 새로울 것이 없는 학습내용이다. 기능주의적이라는 비판은, 언어 기능을 행동주의적 교육관에 따라 언어 기능 요소별로 분리하여 맹목적으로 훈련시키던 시절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가 현재 언어 기능을 분리하여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직접 교수법과 결부된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적 접근이 아니라, 20세기 전반부 행동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언어교육이 행해지던 시절, 즉 언어교육에서 구조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국어과 교육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새롭게 도입된 의사소통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렇게 시대오류를 범하고 있는 구조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최근에 부각된 열린교육의 교육관이나 총체적 언어 학습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적 접근과 매우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어과 교육의 대안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오해 때문인 것이다. 오히려 의사소통적 접근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총체적 언어 학습의 관점처럼 언어학습경험의 배열을 '전체적 접근 → 부분적 접근'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부분적 접근에서는 의사소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적 접근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좀더 계발시킬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을 '학습 초점'으로 설정하

게 되는데 이 때 특정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적 접근에서도 언어교육의 특성상 당연히 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므로, 학습내용의 구성은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데, 분명한 점은 언어 사용 기능을 요소별로 분리하여 맹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최근 국어과 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짚어보면서, 국어과 교육의 관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어과 교육의 변화된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적 접근의 본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 언어를 통한 표현과 이해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스키마)을 기초로 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다.

언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스키마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언어전략의 모의수행(훈련)을 통해 학습전이력을 강조하며, 텍스트 학습시 텍스트 정보 학습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수용과 비판적 안목 및 판단력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지식을 보는 안목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텍스트 이해나 표현 과정에서 학습자가 역동적으로 생성하는 의미를 중시한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나) 교수 학습 과정을 '가설-수정-개방'의 차원에서 보고, 학습자가 수행하는 잠정적인 내용 구성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제작한다.

5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풀어나가는 문제 형태의 활동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활동 중심의 교과서의 기능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과정을 구현하고, 학습활동 중 학습자의 시행착오를 전제로 학습자간 혹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경험의 확대 심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다. 특히 학습자 간의 토의나 토론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 6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지면 구성에서 글 옆으로 도움발문(날개)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초인지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이야기가 수록된 자료집 형태의 읽기교과서가 아니라, 읽기 활동을 배우는 읽기교과서라면,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다루는 과정에 대한 초인지 학습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열린교육과 더불어 각광받는 자기주도식학습과 관련된다.

다) 개인의 관점에서 지식의 유용성(via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허용하고, 교수자는 그러한 학생의 반응을 중재하고 관리한다.

말하기·듣기에서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담화유형을 도입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지도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가치와 판단력을 존중하고, 문학작품 자체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학습자간의 토의·토론을 활성화하여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자 개인간의 (지적, 정의적) 차이를 체험을 통해 확인하게 하고 동시에 지식의 상대성을 실감하도록 한다.

라) 협동학습이나 토의토론 형태를 도입하여 학습환경의 사회화를 도모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경험의 현실성을 지향한다.

언어학습의 학습자료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실제 자료(authentic text)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NIE활용, 방송매체 활용 등), 협동학습이나 토의토론에서 학습자간의 동료상호작용과 평가를 적극 권장하고, 총체적언어학습과 열린교육을 지향하여 학교와 사회의 벽을 헐



고 교육의 실제적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상에서 국어과 교육의 변화를 통해 부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국어과 교육의 변화 양상

	전통적 교실	구성주의적 관점의 교실
언어관	구조화된 언어 체계(용법)	맥락화된 언어 사용(상황)
언어교육접근법	구조주의적 접근	의사소통적 접근
학습자의 역할	언어지식의 이해자	언어 사용의 주체자
교실의 기능	언어지식 전달의 장	언어 사용의 상황 제공
교육과정의 목표	언어의 이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
교육내용의 초점	언어지식, 문학지식	사고력, 언어 사용 전략
교육의 방법	일방적, 설명적 수업	개별화, 소집단학습, 상호작용학습

### Ⅲ. 언어학습경험의 본질과 구성

국어과 교육이 의사소통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의거해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면,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사소통적 접근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의도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학습 내용·학습 활동을 ‘언어 형태’ 위주가 아닌 ‘언어 경험’ 위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습 대상이 되는 언어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환경과 현실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학습 의욕 고취 및 자발적 학습 참여 유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효용성이 높은 학습 내용을 수용하게 하여 학생들의 전이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접근을 할 때, 필요한 언어 학습 경험은 언어를 조작하는 언어사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계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목록들은 선별적으로 채용되어 학습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학습 내용을 '언어학습경험'이라고 규정했다. 앞절에서 이미 언어학습경험의 본질에 대해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언어학습경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서술을 정교화하여 깊이있게 다뤄볼 수 있다.

1단계 : 언어-개념 형성의 언어

2단계 : 언어 학습-의사소통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호인 언어 기능의 학습

3단계 : 언어 학습 경험-의사소통활동을 통한 언어 경험

## 1. 언어와 개념 형성 학습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는 구성소이다. 다양한 기호들이 인간의 사고에 관여하고 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호는 역시 언어이다. 사회구성원으로 합류하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바로 언어이다. 언어(특히 단어)를 통해 사회의 관습과 제도, 문화적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이것은 일찍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인류학적 이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학교교육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언어를 통해 교과를 배우는 교육의 과정 전반이 그렇게 인간의 사고를 계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가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고, 사회적으로 접촉한 언어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여, 점차 머리 속에 복잡한 개념망을 형성하게 된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자신의 사고를 심화시키고 정교화시킨다. 그에 따라 구사할 수 있는 언어도 더욱 확장된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에 결합된 개념이며,

경험을 통해 개념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예: 컵 → 물컵 → 우송 컵 → 홀컵)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미 확장이 가능한 어휘 자원을 제공해 주고, 의도적인 어휘 학습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때 인간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상화를 거쳐 개념을 형성하므로, 개념 형성을 위해 언어 학습 경험을 배열할 때 참고할 수 있다.

1차적 개념(삼각형, 뜨겁다 등) → 2차적 개념(모양, 색깔)  
저차적 개념(색깔, 모양) → 고차적 개념(속성): 위계 형성

개념 형성 학습을 위해서 어휘지도를 통한 개념 형성과, 텍스트 상에서 개념망을 형성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교사와 학습자 간에 개념 전달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현재 학습자의 스키마와 같거나 낮은 수준일 경우는 설명하는 방법이 적절하고, 만일 현재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예를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스키마를 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국 학습자는 일단 직접 경험을 통해, 그 다음으로 토론과 같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기존 지식구조를 새롭게 조절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새로운 상황에 연장시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2. 언어의 기호성과 의사소통

### 가. 기호와 의사소통

의사소통적 접근에 수용되는 언어는 기호로 광범위하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언어라고 하면 '언어 형태'를 연상하는데,<sup>6)</sup>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기호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6) 그리하여 현행 교육과정 상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항목 진술이 언어 형태의 크기(낱말, 문장, 이야기) 위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구조주의적인 접근의 관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사용되는 구어·문어, 나아가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포함하여 언어 활동을 고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의사전달
2. 지식의 기록
3. 새로운 개념의 형식화
4. 다양한 분류를 간단히 하기
5. 반영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
6. 설명
7. 구조의 명시를 돕는 일
8. 일상적 조작을 자동화하는 일
9. 정보와 이해의 재생
10. 창조적인 지적 활동

언뜻 보기에 매우 일반적이고 산만한 분류이지만, 분명한 것은 1~10항이 모두 본고가 규정하는 '의사소통'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기호의 이해는, 기호 체계와 적절한 개념 구조 사이의 상호동화이다. 기호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 나. 기호의 유형

최근 기호학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호의 실체를 구명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기호사용자와 기호의 관계, 그리고 기호로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세계에 대한 해석의 통로를 기호를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기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어과 교육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 경험

이다. 따라서 본고는 언어가 아닌 기호의 차원에서 국어과 교육의 언어 학습 내용을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기호학에서는 좀더 전문적으로 기호와 약호를 구별하고 있다. 기호는 의미 작용의 단위이고 약호는 의미작용 단위의 체계를 지칭한다. 약호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관습성의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약호는 관습성의 정도가 높아서 약호사용자간에 문화적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규칙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므로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바로 의사소통의 공유기능이다. 반면 개인적인 차원의 약호는 개인에 따라 텍스트의 '읽기'는 달라지게 되고, 독자의 협상 과정이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명시적이고 관습성이 높은 약호(논리적 약호)는 텍스트 읽기에서 개인의 수동성을 요구하고, 관습성이 낮은 약호(미학적 약호)는 개인의 보다 적극적인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기호학에서 정리된 약호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논리적 약호, 미학적 약호', 약호를 구성하는 기호의 변별적 양상에 따라 '단속적 약호, 연속적 약호', 미디어 수용자의 속성에 따라 '폐쇄적 약호, 공개적 약호', 약호가 사용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수식적 약호, 제한적 약호'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박정순, 1995)

따라서 의사소통활동을 중심으로 언어 학습 경험을 배열할 때 준거가 되는 것은, 언어 형태(크기)가 아니라, 약호가 되어야 한다.

### 3. 의사소통활동과 언어 학습 경험의 자원

#### 가. 총체적 언어 학습

최근에는 열린 교육이 현장 초등 교육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통합교과를 전제로 한 열린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곧바로 언어 학습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전개된다. 열린 교육의 교과 내부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체적 언어(whole language) 학습은 변화된 국

어과 교육 학습내용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앞서 분리된 언어 기능 지도는 분석적 언어 학습과 연관되고, 그로 인해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회의가 제기 되었다.

총체적 언어 학습은 원래 영어를 모어로 배우는 어린이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관심에서 1960년대 초 K. Goodman과 F. Smith에 의해 시도되었다. 여기서 읽기 활동을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통합된 읽기 과정의 이론을 확립시켰는데 이는 사고력과 직결된다. 특히 L. Rosenblatt는 듀이의 반성적 교수 개념(reflective teaching)을 읽기에 적용하여, 읽기를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교류로 묘사했다. 이것은 Rosenblatt가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타인의 경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읽기, 쓰기, 말하기를 익히게 된다고 한 듀이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상호교류’ 개념은 문학작품 이해 지도와 언어 경험 중심의 읽기 지도<sup>7)</sup>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읽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읽기 기능이 더욱 발달된다는 것과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 나름의 언어로 만들어진 읽기 자료를 읽을 때 읽기 기능이 발달된다는 가정은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다.

열린교실에서는 모든 교과를 통합한 주제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제학습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 영역을 토대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열린교실의 학습활동은 언어 영역을 통합한 ‘총체적 언어 학습’,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하는 ‘학습센터 활동’, 한 주제에 대하여 모든 교과를 통합하여 활동하는 ‘주제 학습’, 서로 돕고 격려하며 활동하는 ‘협력(협동) 학습’ 등이 있다.(박성방, 1995)

7) 언어 경험의 읽기 지도는 학생들은 과학, 사회, 수학 교과와 관련지은 그룹활동, 견학, 토론, 이야기 들려주기, 드라마,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경험에 접하게 하는 학습활동이다.(박성방, 1995)

총체적인 언어 학습 활동은 언어 기능을 분리하여 차시별로 '듣기 → 읽기 → 쓰기 지도'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통합된 언어기능을 구사하여 수행되는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언어학습 피이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므로 실제 언어 사용 현실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를 교실 세계에 끌어들이 학습환경(학습목표, 학습내용)을 조성하므로, 학생들의 동기 유발은 물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언어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게끔 하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 언어 학습은 의사소통 활동을 전제로 하고 의사소통 활동을 학습내용으로 하는 언어 경험과 사회적 맥락 중심의 언어교육이라 볼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의사소통 활동을 유형화하기란 쉽지 않지만, 박수자(1995)는 의사소통 활동의 유형과 학습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때의 의사소통 활동은 바로 총체적 언어 학습이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국어과 교육이라면, 아동들은 실제의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 사용 능력을 체험/신장시켜야 한다. 특히 의사소통활동을 약호에 근거하여 접근할 때 미디어 문화의 기호 해석 능력, 그리고 구어 구사 능력이나 전자 언어 학습은 현실적인 언어 사용을 도모한 총체적 언어 학습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폐쇄적인(인위적인)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설정 및 내용 진술은 재고되어야 한다.

#### 나. 미디어와 언어경험

언어교육은 언어의 본질과 언어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언어사용자는 원활한 언어 사용을 위해 대면 상황의 구어나, 언어적 맥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어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언어의 기원이자 본질인 '음성언어'에서 활자의 발명을 기점으로 크게 부각된 '문자언어', 그리고 최근의 제 3 세대 언어인 '전자언어'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사회의 변화와 맥을 같이해 오고 있

다. 그렇다면 국어과 교육도 그러한 변화를 감안해서 국어과 교육의 학습 내용을 쇄신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미디어 문화이며, 미디어 문화는 기호의 효용성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언어가 기호로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기호학의 일부로 언어학을 규정할만큼 기호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체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 기호학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호로 규정하면서, 미디어 문화의 다양한 메시지들을 연구하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이미지)의 메시지이다. 언어사용자(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하는 미디어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 미디어가 사용하는 기호는 메시지의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고, 메시지는 달리 언어와 무관할 수가 없다. 특히 미디어의 속성은 구어의 특성인, 일회성·순간성·상황성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령, 대중 가요의 가사, 영화·연극·드라마의 대사, 텔레비전의 방송 언어 등은 맹목적으로 대중의 듣기능력과 상황 속의 기호해석능력에 의존한다.<sup>8)</sup>

따라서 구어와 문어는 매체읽기(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어과 교육의 학습 내용으로서 언어와 언어를 둘러싼 기호의 실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국어과 학습 내용(학생들이 배워야 할 언어 경험)의 확장이다.

기호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문어와 구어를 재정리해 보면, 문어는 언어적 맥락에 의존하고 언어 추리를 통해 사고력의 증진에 기여한다. 아울러 텍스트 유형(장르)을 중심으로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 강조

8) 달리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로 표현되는 미디어 문화 속의 기호 해석 능력은 최근 문화비평이나 신문방송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미디어 문화의 존재와 존속 여부가 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상품 광고가 나간 다음 상품 구매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광고는 우선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과대·과소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미디어 효용성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된다. 반면 구어는 상황적 맥락에 의존하고 기호 추리를 통해 사고력의 증진에 기여한다. 구어는 문어와 달리 시간의 제약으로 문화적 관습성에 의존하므로, 언어 사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의해 지배된다. 가령, 문어의 경우에는 문장 간에 정보 생략이 최대한으로 제약되지만, 구어에서는 상황에 의존하여 최대한으로 정보 생략이 허용된다. 언어 사용의 경제성의 원리가 지켜지는 것이다. 보통의 발화문에서 언어사용자들의 '대상(상황)'에 대한 공유 정보가 최소한의 발화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기여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상황에 대한 공유 정보가 없는 제 3자는 일차적으로 이 발화를 이해할 수 없다. 혹은 그러한 발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감각있는 사람이라면, 일차적 이해의 실패를 토대로 그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여 발화의 공유정보를 복원하기도 한다. 그것이 언어 사용 현실이다.

기존의 음성언어 지도의 내용을 구안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구어 사용시 지켜지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원리에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장르의 문어 학습에 비해 구어 학습 내용은 일상적이고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아가 사고력 신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회의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음성언어와 기호의 결합, 문자언어와 기호의 결합,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이란, 그래서 국어과 교육에서 구안할 언어 학습 경험이란, 바로 구어를 포함한 기호 해석/구사 능력의 증진과 한편으로는 문어 해석/구사 능력의 증진, 그리고 매체해석 능력(광고읽기, 영화읽기, 미술작품읽기 등)의 향상까지를 포함한 것

9) 의사소통모델은 공유 개념의 의사소통모델과 전달 개념의 의사소통모델로 분류된다. 문자언어가 출현하기 전에는 전자로 의사소통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문자언어의 출현 이후에는 후자의 역할이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자의 의도(목적)에 따라 양 모델의 특성이 가감된다고 본다.

이어야 한다.

다. 언어경험학습의 구성 원리

앞서의 논의를 정리해 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에 소개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내용구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가) 내용 요소

(ㄱ) 언어 구조

- 표준어
- 맞춤법
- 문장문법
- 텍스트문법

(ㄴ) 약호의 유형

- 논리적 약호, 미학적 약호
- 사회적 약호
- 단속적 약호, 연속적 약호
- 제한적 약호, 수식적 약호
- 방송 약호, 협송 약호

(ㄷ) 언어 사용 전략<sup>10)</sup>

- 담화전략: 묘사하기, 서사하기, 설명하기, 논증하기, 설득하기, 인용하기, 비유하기, 요약하기, 조직하기
- 텍스트전략<sup>11)</sup>: 중심내용파악하기, 글구조 파악하기, 언어표현 파

---

10) 지금까지 전략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전략을 거의 학습방법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전략은 절차적 지식으로서 학습된 결과 전이되어 사고 과정에 개입하므로, 언제든지 알려만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사용하기'나 '참고자료 활용하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도의 훈련(사고과정과 훈련)없이 즉각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습에 동원되는 모든 구체적 방법들이 모두 전략으로 동일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 전략 개념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여 국어과 교육의 학습내용을 형식적으로(혹은 학문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

11) 전략도 일정하게 묶여 제시된다. 가령 '중심내용 파악하기'의 경우 중심내

악하기

- 인지전략: 회상하기, 상상하기, 예측하기, 추론하기, 공감하기, 비판하기
- 초인지전략: 주의를 기울이기, 질문하기, 점검하기

(나) 학습활동

(ㄱ) 과제(task)지향적 의사소통활동의 유형

- 구조 연습
- 유사 의사소통활동
- 작용적 의사소통 활동
-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ㄴ) 지적 변화 지향의 유형

- 갈등 경험 접근
- 문제해결 접근

언어경험의 축을 약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언어 형태 위주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언어 사용 기능, 즉 의사소통의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접근 하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구조, 혹은 언어학습 경험은,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틀을 제시할 수 있다.

---

용이라 지칭되는 '소재, 제재, 핵심어, 중심문장' 등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하여, 다시 '제목붙이기, 핵심어 찾기, 주제문 찾기, 세부내용 찾기' 등의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진술하기도 한다. '글구조 파악하기'의 경우는 '문장간의 관계 알기, 단락간의 관계 알기, 문단간의 관계 알기, 글의 구성방식 알기' 등이 있고, 여기에 '문맥단서를 이용하기, 텍스트응집소 활용하기' 등이 추가된다. '언어표현 파악하기'에는 '단어의 미의 적절성 판단하기, 의미 표현방식 알기, 문체의 효과 알기' 등이 있다.

&lt;표2&gt; 의사소통능력의 수준과 언어학습경험의 초점

수준 1	수준 2	수준 3
구조적 단계	기능적 단계	경험적 단계
언어(형식)에 초점	언어(담화)에 초점	언어 사용에 초점
구조 연습	담화 연습	실제 언어 연습
구조 통제	담화 통제	상황과 주제 통제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언어 지식	기능과 전략	기호해석력
학습 과제	실제 수행 과제	

이에 따라 본고에서 의사소통활동을 전제로 언어학습경험을 조직할 때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일단 '학습목표'와 '의사소통활동 유형'의 행렬표에 '약호의 유형'을 결합시켜 언어경험의 양상을 만든 다음, 언어 학습 경험에 적절한 테마(주제: 학습제재)를 발굴하고, 그 다음 단원 학습에 필요한(혹은 동원되어야 하는) '언어 구조'와 '언어 사용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lt;표3&gt; 학습활동의 구성 원리

학습활동 학습목표	구조 연습	유사 의사소통 활동	작용적 의사소통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지식의 이해	1	2		
언어 사용 전략의 체득		3	4	
의사소통의 성공(과제수행)			5	6

그렇다면 언어 학습 경험의 구성 원리에 따라 참조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단속적 약호)
  - (가) 언어의 기능을 이해한다.-개념 형성, 의사소통의 도구
  - (나)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안다.-발음, 맞춤법, 어법
  - (다)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를 안다.-어휘, 발음, 문법
  
2. 규칙의 본질을 이해한다.(논리적 약호, 협송 약호)
  - (가) 약호의 특징을 이해한다.
  - (나) 약호의 종류와 기능을 안다.-과학적 약호, 수학적 약호/표음문자, 모스부호 체계, 수기체계, 수화체계/표의문자, 상형문자/교통신호, 고속도로의 약호, 철도의 약호, 항공약호
  
3. 담화 전략, 텍스트 전략을 익힌다.(미학적 약호)
  - (가) 담화 유형과 담화 전략을 익힌다.
  - (나)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 전략을 익힌다.
  
4. 인지, 초인지 전략을 익힌다.(수식적 약호)
  - (가) 생각하며 담화와 텍스트를 처리한다.
  - (나) 담화와 텍스트의 사용 과정을 점검한다.
  
5. 의사소통의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한다.(연속적 약호, 방송 약호)
  - (가) 유상기호(그림, 사진, 조각 등)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한다.
  - (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한다.
  
6.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한다.(사회적 약호, 제한적 약호)
  - (가) 사회적 관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 (나) 신체언어의 효과를 알고 활용한다.
  - (다)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본고의 논의를 토대로 언어 학습 경험이 단원 구성에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상정할 수 있다.(박수자, 1996 참조)

<적용예 1>

- 단원목표: 약호의 특징을 이해한다.

- 학습초점: 논리적 약호의 특징, 기호의 자의성 파악
- 학습활동: 지식의 이해를 위한 유사의사소통활동
- 학습자료: 모르스부호의 암호문 해독
- 절차: ㄱ. 암호에 얽힌 이야기를 해 본다.  
      ㄴ. 모르스부호의 규칙을 알아 본다.  
      ㄷ. 모르스부호로 된 암호문을 해독한다.  
      ㄹ. 모르스부호로 된 암호문을 만들어 본다.  
      ㅁ. 기호와 의미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적용예 2>

- 단원목표: 설명하기
- 학습초점: 설명하기 전략
- 학습활동: 전략의 학습을 위한 작용적 의사소통 활동
- 학습자료: 모르스부호의 암호문
- 절차: ㄱ. 암호에 얽힌 이야기를 해 본다.  
      ㄴ. 모르스부호의 규칙을 알아 본다.  
      ㄷ. 모르스부호로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ㄹ. 암호문을 만들어 조별로 교환한다.  
      ㅁ. 암호문을 해독한다.

#### IV. 언어 학습 경험의 교수학습과 구성주의적 전개

국어과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능력 즉,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양한 '언어학습경험'을 중심으로 한 '언어사용활동'을 '수업내용'으로 펼치고자 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본질적으로 사고의 결과(지식의 저장)보다는 사고의 과정(생각의 진행) 측면에서 사고력의 발달을 의도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과정 중심의 활동을 통한 학습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어과 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언어학습경험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언어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패러다임하에서 언어학습경험이 교수학습법 측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초점화하여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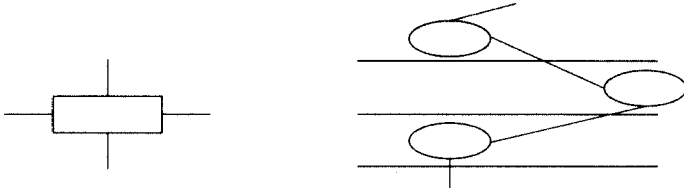
## 1. 어휘 학습

어휘는 지식의 단위로서, 언어사용자의 지식 수준과 더불어 교육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어휘학습은 언어학습인 동시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혹은 담고 있는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된다. 종전에는 어휘량을 늘이는 측면에서 매우 단선적이고 비체계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단어 의미에 대한 질적인 접근 방식(의미 자질분석법, 문맥 단서 이용 등)이나 독서지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습자가 어휘의 본질과 기능을 인식하고, 언어환경에서 어휘 학습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유용성이 높은) '어휘 지도'가 되어야 한다.

어휘지도에서는 어휘간의 관련성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사전지식(경험)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지식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휘들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례1) 의미지도 그리기(semantic mapping)를 통한 어휘지도

어휘지도에서 의미망은 학습자의 사전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만나는 과정에서 스키마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며 변형시키기 위한 유용한 전략으로서, 어휘지도 자체만이 아니라 언어사용기능 신장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망을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 상에서 핵심어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망을 구조화해 볼 수도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독해력 향상과도 관련된다.



이외에 '빈칸메우기(cloze test)를 통한 어휘지도'나 '모방과 대체를 통한 어휘지도'가 있을 수 있다. 빈칸메우기는 담화나 텍스트상에서 일정 빈칸(규칙/변형빈칸, 선정된 어휘항목의 선다형 제시)을 제시하여 누락된 단어(혹은 문장 : 정보)를 복원하는 과정인데, 학습자의 스키마(기존의 어휘력)와 추리력 등이 모두 관여하며, 동시에 문맥 속에서 새로운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학습 어휘에 대한 심도있는 지도가 가능하다. 대체와 모방은 기존의 텍스트를 쉬운 단어 혹은 어려운(낮선)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그 단어를 이용하여 내용은 유사하되 자신의 글로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이해력과 표현력을 결부시켜 어휘지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2. 말하기 · 듣기 학습

음성언어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언어기능으로 매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황맥락'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사용의 현실성과 언어학습의 효율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상황맥락은 화자가 단순히 청자와 얼굴을 맞대고 반응하는 시공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되는 것에 주목하고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보는 말하기를 통해 전달되고 듣기를 통해 이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역동적 활동을 통해 생성/창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하기 듣기 학습에서 학습자의 스키마와 사회적 상황의 만남이 동화 조절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생각하는 말하기 듣기 학습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말하기 듣기 학습에서 생각을 유도하는 정교한 상황맥락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의사소통시 의미전달에서 언어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기호(사진, 삽화, 도표, 혹은 표정, 제스처 등)의 활용을 적극 도입하여 의사소통의 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듣기 학습에서 청음자체보다는 청해 측면을 강조하고, 청자가 가진 사전지식을 활성화하거나 비판적 듣기의 비중을 확대하여 정보의 적극적인 사용 주체로서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듣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며, 듣기 반응을 말하기나 쓰기만이 비언어적 활동(음악, 미술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사례1) 독서토론과 나의 의견

‘6학년 1학기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 5단원 의견을 모아서’에서는 ‘토론을 듣고,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토론자의 의견을 나누어 보고, 나의 생각을 의견으로 말해 본다.’는 학습내용(1차시분량)을 담고 있다. 세 문항 정도로 학습활동이 진술되어 있어서, 학습활동이 매우 단순해 보이고 1차시 분량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다면 매우 의의가 있는 학습경험이다. 토론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집중해 보게 한다. 말하고 듣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사고력을 촉진하고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게 하는 활동인데, 토론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다. 정답을 찾는 지식학습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상호작용)을 통해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그러한 학습의 흐름을 인식하고, 토론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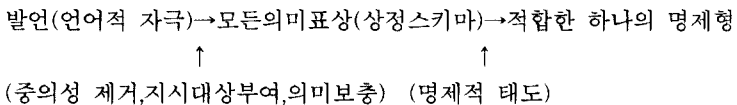
### 3. 읽기 학습

읽기는 독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개념'의 조작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이미 지니고 있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인데, 스키마이론가들은 읽기는 '글로벌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상호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자원의 조정을 요구하는 복잡한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새로운 텍스트를 접함으로써(독서), 독자는 지속적으로 스키마를 심화 확대하고, 아울러 사고과정을 정련시키는 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Bartlett가 20세기 초에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읽기기능의 목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재조직 : 유목화, 개요, 요약, 종합
- 추론 : 뒷받침이 되는 세부내용 추론, 중심생각 추론, 비교추론, 원인과 결과 추론, 인물의 특성 추론, 결론 예측, 비유적 언어 해석
- 평가 : 현실과 환상의 판단, 사실과 의견의 판단, 정확성과 타당성의 판단, 적절성의 판단, 수용가능성의 판단
- 감상 : 주제나 구성에 대한 정의적 반응

이중에서도 특히 추론은 글에서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어지식과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합하는 정신과정이다. 최근에는 추론적 읽기의 중요성도 재부각되고 있다. 추론과정에 대해 다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식가려내기→명제 의미→맥락효과→해석→청자의 세계 표상개선



(구정보 신념 폐기, 구정보 신념 강화, 맥락함축, 합성적 신정보)

또한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으로 읽기를 하는 능동적인 의미구성 과정이다. 비판적 읽기가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의 반응이라면, 감상적인 읽기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반응이다. 둘다 글에 대한 일정한 준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객관적으로 읽기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외에 창의적 읽기는 독자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산출할 목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통합하고 확장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본다. 창의적 읽기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의 타파, 예측하기, 대안마련하기, 글의 내용 다시 쓰기, 같은 내용 비교하여 통합하기' 등이 소개되고 있다. 창의적 읽기는 설명적인 글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로 문학적인 글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개성적이며 자발적인 의미구성 과정을 권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소집단 토의를 통한 읽기 활동은 감상자 중심이나 반응 중심의 문학 지도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읽기 학습의 내용은 대다수가 글의 사실적 이해에 집중되어 글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추론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 그리고 창의적 읽기의 학습내용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례1)

'6학년 1학기 읽기교과서 1단원 우리는 하나'에서 본문 첫부분 낱개에 '제목으로 보아 이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짐작하며 글을 읽어 보자.'는 도움발문이 있다. 읽기전략 중 예측하기전략으로 제목을 단서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초등학교 읽기교과서는 새로운 주제나 장르의 글을 실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다

루는 과정을 교사의 안내를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학습내용으로 주목받는 읽기전략은 텍스트 독해 과정에서 스키마를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의미구성과정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읽기학습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안목, 즉 초인지학습이 중시된다.

#### 4. 쓰기 학습

종전의 쓰기 지도는 완성된 글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결과 중심의 작문지도였다면, 최근의 쓰기 지도는 과정 중심이자 학생 중심의 쓰기 지도로 전환되었다. 국어과 교육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 본격적이고 명시적으로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도입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분야이다.

잘 정돈된 지식의 배열을 보여주는 성인의 글처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가 얼마나 자극을 받는 지, 다른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지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이 매우 주목된다. 학습자간의 ‘협의하기’를 중심으로 한 ‘대화 중심의 작문모형’이 개발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 지도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쓰기전략이다.

한편 쓰기 학습은 사전지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디어 생성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집필과 퇴고’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완성된 글과 그 평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에서 집필’까지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휘지도와 관련되며, 본질적으로 개념 형성이나 개념 전달 학습과도 관련된다. 쓰기지도는 글을 완성하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다기보다는,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하는 훈련과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언어화 과정을 훈련시키기 위해 마련된 학습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 사례1) 생각그물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생성하기

생각그물은 일종의 마인드맵인데, 마인드맵처럼 지식의 학습전략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각을 활성화하여 글을 쓰는 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기유발을 하며 글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보통 글 쓸 내용의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글을 완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도입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학습자의 생각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 단, 생각그물을 만들 때 확산망(연상에 의한 개방적 사고)만을 고려하지 말고, 수렴망(개념에 의한 논리적 사고)의 기능도 감안해야 한다.

보통 생각꺼내기에만 치중하여 연상에 의한 정보들을 모두 생각그물로 가지치기를 할 경우 나중에 산만하게 되어 정리할 수 없게 되고, 글을 쓰기 위해 또다른 정리 작업이 요구되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생각그물을 작성할 때, 교사가 맵핑의 가치에 단서(제한 조건-글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시간/공간, 반대/비슷한, 상하 등)를 달아서, 학습자의 사고를 일정하게 혹은 유의미하게 학습목표와 관련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 사례2) 문제해결을 위해 생각하는 글쓰기

'5학년 1학기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 9단원 생각들의 만남'에서는 토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쓴다는 목표가 있다. 예시 상황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해 본 다음,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마무리한다는 1차시 분량의 내용이다. 이 경우에도 미리 제시된 문제점을 듣고 해결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문제성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안을 발표해 보는 데만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시간도 부족하고 학습 효과도 전혀 없는 단순 활동에 그치게 된다.

이 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나 학교 혹은 학급에서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점을 먼저 간단한 토의를 통해 정리해 본 다음, 조별로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전부 글쓰기로 흔적을 남긴다.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전체 토의를 하면서, 각자 가능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종합 과정이 토의를 통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의사소통활동으로서 언어학습경험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국어과 교육에 도입된 혹은 도입가능한 내용에 대해 구성주의적 관점을 적용해 검토해 보았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어과 교육의 내용, 즉 언어학습경험이 '언어적 사고력 증진, 언어사용전략의 학습, 과정과 활동 중심의 언어활동' 등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제기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관의 변화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지닌 포괄성이 교육내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구성주의 지식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국어과 교육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담아내는 언어를 다룬다는 측면이 부각되다 보면, 자칫 언어학습경험이 활동만 있고 내용(지식)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사고력을 촉진하고, 언어학습경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는 조직화된 의사소통과제와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담화 텍스트 유형에 따른 언어사용전략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언어전략의 지도는 언어학습을 수행하는 와중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일정한 협의점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이 무의미한 활동으로 산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적 접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회의가 발생한다.

학습자의 개별적인 반응을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학습력에 대한 교사의 판단과 적절한 교육적 처치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전문적인 관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사는 수업의 방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이 개선되는 상황과 병행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사양성기관의 전문커리큘럼으로 정제·심화되고, 교육현장에 대한 실무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의 연수가 강화되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는 발전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학습자의 활동이 중시된 수업에서 학습환경의 조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학습참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산만하지 않고 유의미한 학습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사가 사전에 학습환경의 조직을 체계적이고도 치밀하게 마련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교사의 부담이므로, 교과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참고자료와 현장교사의 수업에 관한 전문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각과 지식관의 변화는 교육의 핵심내용인 언어경험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였고, 교과서의 내용이 '언어사용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구체화되어 교육현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의 점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성주의적 관점의 지식관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지식관이 주던 확신을 교사나 학부모에게 주지 못하

고, 교사 스스로도 가르치는 내용의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 학습상 방법론의 확립도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의 교과별 실무실습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언어학습경험이 이미 지식의 확실성의 차원이 아니라, 유용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듯 하다. 그래서 언어학습경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제도교육 내에서 교육 내용, 즉 학습 경험의 선정과 배열은 변화하는 사회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21세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국어과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효율적인 언어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선정해야 할 언어 학습 경험은, 변화한 사회의 특성에 맞는 언어관과 언어학습관의 확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학습 경험의 조직, 즉 교육과정 영역 설정이나 학습 내용의 진술 면에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할 언어 능력이란, 또 언어 학습 경험이란 현대 미디어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음성언어 학습 경험의 특화와, 순전히 언어적 맥락에 의존하는 텍스트 학습 경험, 즉 문어에 대한 학습 경험의 특화가 필요하다. 언어 경험의 본질적인 변화와 열린 교육이라는 교육관의 변화를 학교현장의 국어과 교육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교과교육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20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관점인 구성주의적 접근이 국어과 교육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소박하게 검토해 보았다. 어느 대안이나 완벽할 수 없기에 이론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논의는 그렇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 《참고문헌》

- 고윤희(1996), 「문제 중심 구성주의 수업과 전통적 수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공인화(1996),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웹보조학습의 의미와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학 석사논문.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 기 고티에, 유지나·김혜련 역(1996), 『영상기호학』, 민음사.
- 김병수(1988), 「피아제의 구성주의와 학습」, 서울대 교육학 석사논문.
- 김성기(1996),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 비평』, 민음사.
- 김육동(1993), 『문학의 위기』, 문예출판사.
- 김주환·한은경 역(1994), 움베르토 에코 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 노명완 외(1988),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 박성방(1995), 『열린 교육을 위한 총체적 언어 학습』, 우리교육.
- 박수자(1993),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_\_\_\_\_ (1995), 「말하기·듣기 교재의 체계화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 (1996), 「국어과 교육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 학습 경험과 내용 구조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6집, 국어교육학회.
- 박영목 외(1995),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박영배(1995), 「수학 교수학습의 구성주의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학 박사논문.
- 박정순(1995),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출판.
- 손영애(1996),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II), <읽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1.
- 신헌재 외(1996), 『열린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 이승제(1995), 「급진적 구성주의와 실재론적 설명모델-사회학적 설명가능성에 대한 논쟁」, 서강대 문학 석사논문.
- 이정모 외(1998), *인지심리학의 제문제(II): 언어와 인지*, 학지사.

176 국어교육연구 제5집

조연주 외(1997), 『구성주의와 교육』, 학지사.

최현섭 외(1995),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_\_\_\_\_ 외(1996),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한동호(1997), 「컴퓨터를 활용한 영어 교수학습모형 연구-특히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제주대 교육학 석사논문.

허창범(1992), 「구성주의 수업의 학습효과 분석」, 고려대 교육학 석사논문.